

# 追憶의手帖

第 4285 回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目次

叶弘吉	校長	一
本校創立意義	校長	一
卒業同學序	副校長	一
惜別辭	校監	一
題另	金鎮基(先生)	持五三
本校沿革	鄭在景(卒業生)	五三
卒業生診察室	許寬(卒業生)	五五
詩(己卯熟稿)		十一
(乙卯己卯年記)		五五
教職員一覽表		五八
大韓速記商專校術營同憲會金則		五九
名譽金員名簿		六二
全員名簿		六五
編輯後記		六八
叫		七一

## 내리말

瞬間이란 아래서置無한사보다……? 어제와 같은人文이 오늘의卒業을 가져오고  
제마다 해여져야 할運命! 그는 하늘의希望임에 힘없기도 하나. 또한 힘은事災  
이기도 한 것이다. 그려기에 우리들은 스스로 옛고장을 그리워하고, 또한 옛것을 사  
랑하는 진정 하나의 人情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肉体를 지난人間였기에 神  
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宿命! 이것이 정녕 하나의 깨닫인듯하다.

짧은듯하면서도 긴一回…… 여기에無數한 時間이 가고 煩悶이 가고 오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술기로운追憶, 즐거운印叢 그리고 過記의 賦得이 있으면 남아있을뿐이다  
어서 『追憶의 手帖』 우리들의學窓期을 떠온 것이다.

그동안 우리들은 둘라운忍耐를 거듭했고, 痘症과 倦怠不安과 黑操의 어둠에서 이  
제述記를完全히 認得하고 여기에榮譽로운卒業의榮光을 얻게 된것이니 면 面을  
우리를의 열흘에 주름이지고 윤으로운 손등에 짚줄이 돋아올라도 이것 『追憶의 手

一  
許  
安

本校創立의 意義  
校長 林鍾萬  
收復以 復我民  
性을 切實히 두기로 하였다.  
六二五 亂離가가서운 逮起界의 欲害相之마치 首都서쪽의 俗弊道도貪求連想하게  
된이 그간 全國速記界를 代表하고 議會速記士의 所有以上 重複失禮적이거나 欺詐  
還都까지의 議會速記이 不幸이 議會速記士의 朝下臺田柱吳太閼派上中斷이 異外列에  
議員。○三水東江濱衡陽上州臨贛自離自定 大理外付集會之 議會速記士의  
甘共產主義 나니 聽其 事數二牛二司七民主政局의 色인 議會速記士의 生意起記錄之。後  
甘而傳其生以 聽其速記處是 重複害耳。 나는 痛歎其弊害甚가 由고 여기에 付速記의 必要

문이다. 나는 저녁에 속회를 했고, 헌재事業이一刻不消滅하고, 주제에 대한 관심은 절로 생겨나니,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한다. 이 것은 나의責무가 있고, 이는 회의記錄을 통해 알게 된 바이다. 빠른 시일에 속회를 원한다면, 하느 國稅機關, 文化機關, 其他速記需要부의便宣을 원하는 바이다. 意欲을 갖는다면速記士要成事業이다. 人急하게 成就되어야 하는 情勢下에 서둘러 헌재는 國軍이나 國稅를 改修之勢로 北進을 繼續해야 失地를 回復하고 國統을 일정시켜야 한다. 而이 完成되어 되면 무 葉이 以기로하여 文化의一翼을 차관할速記의 責任은 由我 懇切히 持明해 드린다.  
그러나 九二八 遺都後의 나의速記士要成事業計劃은 半共傀儡의 成事가 있으므로, 三後遺와 三後의 端將官都督山으로 訓기 시설이 면제되어야 한다.  
여러하여 10. 12. 遷華한議會의 일정을 정리하는데 그려고, 計划를 풀어놓아 투표를 하려고 한다.  
나의計划은 與前回是大體의 기가, 基本은 같다. 이 경제季產 하면 遷華사가 終了하는 時間이  
경過하며, 至少安定期의 옮김일정 10. 12. 國會速記課에서 나의事業計劃이 實現될  
날짜가 되고, 나의構想은 韓半島南端港口 釜山에서 工業을 보게 되겠다.

하니 生徒을 選하여 本校의 發展을 漸次로 軌道에 為さ라 爲도 以於 勤之 進之 成績  
三十七名이 라는 級生을 選出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俗語에 가之 國不速記 著書川村傳記 無事  
出에 主力慢坐하고 無事以도 事美이지자 完成則 速記主重 產出時 라는 데에  
非常处 努力를 하면 훈련이 있다

本校教育事業의 善闡之 百名위 李光成述敘士一產出보다 業社의先成述  
述記士志必要로하니 量보다 實을 더욱 尊重하여야하는 데 있다.

充實之言著，談話以獨創爲宗，畫圖以發揮爲已。勿論諸

關人記業續皇姑祠主對託碑乙巳年

辛紫州祭司印  
副校長 徐商復

副  
校  
長

徐  
國  
俊

精神上  
本校의 業務는 차치하고  
社会에進出하되 應付하여  
社會에 마디附託이 與其  
一貫又是一貫이 無事에 有事이  
社会生活을 有事이 有事이

한 草 備 問 가 라고 불수 쓰는 것이다. 周 間 의 대 當 問 은 探 究 을 이로 부리면 것이다.

年間速記學회에 있으나 이곳으로 完全하마고 留學수료되었으므로 告示上 試験을  
마치지 않는다면 入學前으로 돌아온 것이다 모든環境이 常態將迎을 倍加

王朴山은 諸君意하니 朴山 誓誠부(二斗) 連記學社(三三) 仁使令至亮述(자) 金政  
모든 分野에 걸쳐 博厚誠의 士 라야만 聰能을 舉擇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連記  
의 輸腳(二斗) 機械의 力 운동보다도 創意의 인 生活方式에 친도로 되도록  
다시 評述하면 特殊部門에 屬하게 함보다 曾偏化하게 하여 文明의 利器로 되었음  
努力하기 바란바이다.

본으로 諸君의 健康發達을 衷心으로 祝福한다

惜別 拆上 1919년 3월 3일 故 鮑 金 濟熙 本  
卒業生諸位는 3월 3일 졸업식에서 連記學社(三三) 許誠부(二斗) 金政  
모든 分野에 걸쳐 博厚誠의 士 라야만 聰能을 舉擇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連記  
의 輸腳(二斗) 機械의 力 운동보다도 創意의 인 生活方式에 친도로 되도록  
다시 評述하면 特殊部門에 屬하게 함보다 曾偏化하게 하여 文明의 利器로 되었음  
努力하기 바란바이다.

하고 한다

六七月 三伏暑中(三伏) 足弱(足弱) 腹脹(腹脹) 이 날에 걸친 일이고 있었다. 그때  
暑客이 목의 핏물은 누구나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머나먼 친척, 걸어온다거나  
묘방에 철저한 표정이었을 것 같다. 친구들은 점이 가던 이 시시한 도읍의 홍보  
는 腹脹도 3伏의 痘瘍과 肉体의 疾病을 이以上学历을 가질 수 있다. 그려니마  
간신히 대체로 銀杏(銀杏)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이 銀杏 나무 옆은 정부의 관찰관이  
쓰고 있다.

총대구나 좋아하고 이 절은 緑陰寺를 向 하며 廉을 아갔다. 이는 銀杏 나무 앞에  
진을 緑陰진(綠陰進)이었고 아침을 수습한 誓願(誓願)과 殿전(殿前)에 있었고 터미하고 마운  
것은 段食(段食)들이 많고 차에 차를 차고 있었다. 이들은 過客(過客)으로 티리를 풀  
거나 허락하고 慶(慶)을 두 손으로 아는 티리를 해서 고는 過客(過客)이었고 이들은  
도리로 주서 있고 銀杏 나무에 無限히 感動하며 다시 면회를 써서 하게 걸어 가게  
되었다.

銀杏 나무는 이 절은 緑陰의 터로 티리를 차고 있다. 이 절은 緑陰의 어머니인 過客(過客)  
마음 속으로 祝福하였다. 銀杏 나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만 빠르게 健康  
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銀杏 나무는 이렇게 세상을 했다. 이 이 마음은 나쁜 이 慢性(慢性)  
리에서 그만 벌러 놔지 않고 빠르게 健康이나 이 절은 緑陰이 간절히 緑陰을 찾자  
즉ち 이 나마 마음을 고 쉬어갈 수 있는 緑陰을 찾았다는 데에 無限히 기뻤고 또

自己가 가지 못하는 것을 自己代身으로 어나면 갈을 걸어간다고 생각 치우는 緑  
연객에 또 다시 마음 속으로 祝福을 드리며 이제 차를 이어 염두해 올 緑연은 緑연을  
찾아 아는 데에는 차를 찾을 수 있다. 慢性(慢性)을 찾을 수 있다.  
라고 銀杏 나무는 생각했다. 이 땅에 이 銀杏 나무로 祝福을 드릴 수 있었다.  
이 緑연의 땅은 銀杏 나무로 주 葉生(主葉生)諸位(諸位)로 대체하고 學校의 役割(役割)을 銀杏 나무에 대체  
하였고 銀杏 나무가 前途(前途)에 한 번 葉生(葉生)에게에게 銀杏 나무의 役割(役割)이 될 수 있다.  
같아 또 될 수 있다면 幸福을 드릴 수 있다.

이제 諸位(諸位)가 本校를 떠나는 데 있어 情別(情別)의 情(情)을 드리며 記念集(記念集)을 사는데 가지는  
이를 다는 心情에 感動하여 祖國의 希望을 及肩(及肩)에 지니 故門(故門)을 떠나는 諸位(諸位)의 健康  
과發展(發展)을 마음 속으로 祝福을 드린다.

绍介하는 것보다 국적의事業인 것이다. 그나마 아끼어 청년 학事報告로  
대하고자 한다.

四月 學事報告 在校七 檢紀四二八四年十二月一日 文教部長官의 認可를 얻어 教育法에依據한  
高等技術學校로 開校式를 행한 것이다. 次年十一月中句 學生募集에着手하여 百三十七名의 應募者 중 九十五명이 新入  
生을 選拔하였으며男女共學制를採取하기로 하였다. 開校에 이르자 之放舍間  
係로不得已 二部制敎授을實施하게 되었으나 在校中 三十七名의 老師와 1生 1  
기원을 訓機로 檢紀四二八五年三月 二部制敎授을 撤消하고 一層連  
起敎授의 先後을 圖牒(圖牒)하기 위하여 指揮에 있어서 主力로 速記學과 速記術(速記術)에 置  
重視되었으며 全修業期間을 통하여 800시간의 速記學敎授과 速記術敎授을 実施하였다. 之  
다. 其間 本校學生中速記字敎習傳이 있어 許多社團에 逢着하여 이를 克服하지  
못한 학생들이 大批로 등록하였다.

## 四月 學事報告

在 校 七 檢 紀 四 二 八 四 年 十 二 月 一 日

文 教 部 長 官 의 認 可 를 얻 어 教 育 法 에 依 據 한

고 等 技 術 学 校 로 開 校 式 를 행 한 것 이 다

次 年 十 一 月 中 句 学 生 畢 賽(畢賽)에着手하여 百 三 十 七 名 의 應 賽(應 賽) 者 중 九 十 五 名 이 新 入

生 을 選 拔 하였 으 며 男 女 共 學 制 를 採 取 하 기로 하 였 다. 開 校 에 이 르자 之 放 舍 間

係로 不 得 已 二 部 制 敎 教(敎 教) 被 施 行 于 之 放 舍 間 外 之 一 在 校 中 三 十 七 名 의 老 師 와 1 生 1

기 원을 訓 機로 檢 紀 四 二 八 五 年 三 月 二 部 制 敎 教(敎 教) 被 撤 消(撤 消) 하 고 一 層 連

起 敎 教(敎 教)의 先 後를 圖 賽(圖 賽) 하 기 위 以 有 指 挥(指 挥)에 있 어서 主 力(主 力)로 速 記 學(速 記 學)과 速 記 術(速 記 術)에 置

重 視(重 視)되 었 으 며 全 修 业(修 业) 期 间(期 间)을 통 하여 800 小 时(小 时)의 速 記 學(速 記 學)敎 教(敎 教)과 速 記 術(速 記 術)敎 教(敎 教)가 采 取(采 取)되 었 다.

其 间(其 间) 本 校 学 生 中 速 記 字(速 記 字)敎 教(敎 教)傳(傳)이 있 어 許 多 社 团(社 团)에 逢(逢)着(着)하 여 이를 克 服(克 服)하 지

不 능(不 能)한 학 生(学 生)들이 大 批(大 批)로 등록(登記)하였다.

四月 學事報告

在 校 七 檢 紀 四 二 八 四 年 十 二 月 一 日

文 教 部 長 官 的 認 可 를 얻 어 教 育 法 에 依 據 한

고 等 技 術 学 校 로 開 校 式 를 행 한 것 이 다

次 年 十 一 月 中 句 学 生 畢 賽(畢賽)에着手하여 百 三 十 七 名 의 應 賽(應 賽) 者 중 九 十 五 名 이 新 入

生 을 選 拔 하였 으 며 男 女 共 學 制 를 採 取 하 기로 하 였 다. 開 校 에 이 르자 之 放 舍 間

係로 不 得 已 二 部 制 敎 教(敎 教) 被 施 行 于 之 放 舍 間 外 之 一 在 校 中 三 十 七 名 의 老 師 와 1 生 1

기 원을 訓 機로 檢 紀 四 二 八 五 年 三 月 二 部 制 敎 教(敎 教) 被 撤 消(撤 消) 하 고 一 層 連

起 敎 教(敎 教)의 先 後를 圖 賽(圖 賽) 하 기 위 以 有 指 挥(指 挥)에 있 어서 主 力(主 力)로 速 記 學(速 記 學)과 速 記 術(速 記 術)에 置

重 視(重 視)되 었 으 며 全 修 业(修 业) 期 间(期 间)을 통 하여 800 小 时(小 时)의 速 記 學(速 記 學)敎 教(敎 教)과 速 記 術(速 記 術)敎 教(敎 教)가 采 取(采 取)되 었 다.

其 间(其 间) 本 校 学 生 中 速 記 字(速 記 字)敎 教(敎 教)傳(傳)이 있 어 許 多 社 团(社 团)에 逢(逢)着(着)하 여 이를 克 服(克 服)하 지

不 능(不 能)한 학 生(学 生)들이 大 批(大 批)로 등록(登記)하였다.

四月 學事報告

在 校 七 檢 紀 四 二 八 四 年 十 二 月 一 日

文 教 部 長 官 的 認 可 를 얻 어 教 育 法 에 依 據 한

고 等 技 術 学 校 로 開 校 式 를 행 한 것 이 다

次 年 十 一 月 中 句 学 生 畢 賽(畢賽)에着手하여 百 三 十 七 名 의 應 賽(應 賽) 者 중 九 十 五 名 이 新 入

生 을 選 拔 하였 으 며 男 女 共 學 制 를 採 取 하 기로 하 였 다. 開 校 에 이 르자 之 放 舍 間

係로 不 得 已 二 部 制 敎 教(敎 教) 被 施 行 于 之 放 舍 間 外 之 一 在 校 中 三 十 七 名 의 老 師 와 1 生 1

기 원을 訓 機로 檢 紀 四 二 八 五 年 三 月 二 部 制 敎 教(敎 教) 被 撤 消(撤 消) 하 고 一 層 連

起 敎 教(敎 教)의 先 後를 圖 賽(圖 賽) 하 기 위 以 有 指 挥(指 挥)에 있 어서 主 力(主 力)로 速 記 學(速 記 學)과 速 記 術(速 記 術)에 置

重 視(重 視)되 었 으 며 全 修 业(修 业) 期 间(期 间)을 통 하여 800 小 时(小 时)의 速 記 學(速 記 學)敎 教(敎 教)과 速 記 術(速 記 術)敎 教(敎 教)가 采 取(采 取)되 었 다.

其 间(其 间) 本 校 学 生 中 速 記 字(速 記 字)敎 教(敎 教)傳(傳)이 있 어 許 多 社 团(社 团)에 逢(逢)着(着)하 여 이를 克 服(克 服)하 지

不 능(不 能)한 학 生(学 生)들이 大 批(大 批)로 등록(登記)하였다.

四月 學事報告

在 校 七 檢 紀 四 二 八 四 年 十 二 月 一 日

文 教 部 長 官 的 認 可 를 얻 어 教 育 法 에 依 據 한

고 等 技 術 学 校 로 開 校 式 를 행 한 것 이 다

次 年 十 一 月 中 句 学 生 畢 賽(畢賽)에着手하여 百 三 十 七 名 의 應 賽(應 賽) 者 중 九 十 五 名 이 新 入

生 을 選 拔 하였 으 며 男 女 共 學 制 를 採 取 하 기로 하 였 다. 開 校 에 이 르자 之 放 舍 間

係로 不 得 已 二 部 制 敎 教(敎 教) 被 施 行 于 之 放 舍 間 外 之 一 在 校 中 三 十 七 名 의 老 師 와 1 生 1

기 원을 訓 機로 檢 紀 四 二 八 五 年 三 月 二 部 制 敎 教(敎 教) 被 撤 消(撤 消) 하 고 一 層 連

起 敎 教(敎 教)의 先 後를 圖 賽(圖 賽) 하 기 위 以 有 指 挥(指 挥)에 있 어서 主 力(主 力)로 速 記 學(速 記 學)과 速 記 術(速 記 術)에 置

重 視(重 視)되 었 으 며 全 修 业(修 业) 期 间(期 间)을 통 하여 800 小 时(小 时)의 速 記 學(速 記 學)敎 教(敎 教)과 速 記 術(速 記 術)敎 教(敎 教)가 采 取(采 取)되 었 다.

其 间(其 间) 本 校 学 生 中 速 記 字(速 記 字)敎 教(敎 教)傳(傳)이 있 어 許 多 社 团(社 团)에 逢(逢)着(着)하 여 이를 克 服(克 服)하 지

不 능(不 能)한 학 生(学 生)들이 大 批(大 批)로 등록(登記)하였다.

四月 學事報告

在 校 七 檢 紀 四 二 八 四 年 十 二 月 一 日

文 教 部 長 官 的 認 可 를 얻 어 教 育 法 에 依 據 한

고 等 技 術 学 校 로 開 校 式 를 행 한 것 이 다

次 年 十 一 月 中 句 学 生 畢 賽(畢賽)에着手하여 百 三 十 七 名 의 應 賽(應 賽) 者 중 九 十 五 名 이 新 入

生 을 選 拔 하였 으 며 男 女 共 學 制 를 採 取 하 기로 하 였 다. 開 校 에 이 르자 之 放 舍 間

係로 不 得 已 二 部 制 敎 教(敎 教) 被 施 行 于 之 放 舍 間 外 之 一 在 校 中 三 十 七 名 의 老 師 와 1 生 1

기 원을 訓 機로 檢 紀 四 二 八 五 年 三 月 二 部 制 敎 教(敎 教) 被 撤 消(撤 消) 하 고 一 層 連

起 敎 教(敎 教)의 先 後를 圖 賽(圖 賽) 하 기 위 以 有 指 挥(指 挥)에 있 어서 主 力(主 力)로 速 記 學(速 記 學)과 速 記 術(速 記 術)에 置

重 視(重 視)되 었 으 며 全 修 业(修 业) 期 间(期 间)을 통 하여 800 小 时(小 时)의 速 記 學(速 記 學)敎 教(敎 教)과 速 記 術(速 記 術)敎 教(敎 教)가 采 取(采 取)되 었 다.

其 间(其 间) 本 校 学 生 中 速 記 字(速 記 字)敎 教(敎 教)傳(傳)이 있 어 許 多 社 团(社 团)에 逢(逢)着(着)하 여 이를 克 服(克 服)하 지

不 능(不 能)한 학 生(学 生)들이 大 批(大 批)로 등록(登記)하였다.

四月 學事報告

在 校 七 檢 紀 四 二 八 四 年 十 二 月 一 日

文 教 部 長 官 的 認 可 를 얻 어 教 育 法 에 依 據 한

고 等 技 術 学 校 로 開 校 式 를 행 한 것 이 다

次 年 十 一 月 中 句 学 生 畢 賽(畢賽)에着手하여 百 三 十 七 名 의 應 賽(應 賽) 者 중 九 十 五 名 이 新 入

生 을 選 拔 하였 으 며 男 女 共 學 制 를 採 取 하 기로 하 였 다. 開 校 에 이 르자 之 放 舍 間

係로 不 得 已 二 部 制 敎 教(敎 教) 被 施 行 于 之 放 舍 間 外 之 一 在 校 中 三 十 七 名 의 老 師 와 1 生 1

기 원을 訓 機로 檢 紀 四 二 八 五 年 三 月 二 部 制 敎 教(敎 教) 被 撤 消(撤 消) 하 고 一 層 連

起 敎 教(敎 教)의 先 後를 圖 賽(圖 賽) 하 기 위 以 有 指 挥(指 挥)에 있 어서 主 力(主 力)로 速 記 學(速 記 學)과 速 記 術(速 記 術)에 置

重 視(重 視)되 었 으 며 全 修 业(修 业) 期 间(期 间)을 통 하여 800 小 时(小 时)의 速 記 學(速 記 學)敎 教(敎 教)과 速 記 術(速 記 術)敎 教(敎 教)가 采 取(采 取)되 었 다.

其 间(其 间) 本 校 学 生 中 速 記 字(速 記 字)敎 教(敎 教)傳(傳)이 있 어 許 多 社 团(社 团)에 逢(逢)着(着)하 여 이를 克 服(克 服)하 지

不 능(不 能)한 학 生(学 生)들이 大 批(大 批)로 등록(登記)하였다.

四月 學事報告

在 校 七 檢 紀 四 二 八 四 年 十 二 月 一 日

文 教 部 長 官 的 認 可 를 얻 어 教 育 法 에 依 據 한

고 等 技 術 学 校 로 開 校 式 를 행 한 것 이 다

次 年 十 一 月 中 句 学 生 畢 賽(畢賽)에着手하여 百 三 十 七 名 의 應 賽(應 賽) 者 중 九 十 五 名 이 新 入

生 을 選 拔 하였 으 며 男 女 共 學 制 를 採 取 하 기로 하 였 다. 開 校 에 이 르자 之 放 舍 間

係로 不 得 已 二 部 制 敎 教(敎 教) 被 施 行 于 之 放 舍 間 外 之 一 在 校 中 三 十 七 名 의 老 師 와 1 生 1

기 원을 訓 機로 檢 紀 四 二 八 五 年 三 月 二 部 制 敎 教(敎 教) 被 撤 消(撤 消) 하 고 一 層 連

起 敎 教(敎 教)의 先 後를 圖 賽(圖 賽) 하 기 위 以 有 指 挥(指 挥)에 있 어서 主 力(主 力)로 速 記 學(速 記 學)과 速 記 術(速 記 術)에 置

重 視(重 視)되 었 으 며 全 修 业(修 业) 期 间(期 间)을 통 하여 800 小 时(小 时)의 速 記 學(速 記 學)敎 教(敎 教)과 速 記 術(速 記 術)敎 教(敎 教)가 采 取(采 取)되 었 다.

其 间(其 间) 本 校 学 生 中 速 記 字(速 記 字)敎 教(敎 教)傳(傳)이 있 어 許 多 社 团(社 团)에 逢(逢)着(着)하 여 이를 克 服(克 服)하 지

不 능(不 能)한 학 生(学 生)들이 大 批(大 批)로 등록(登記)하였다.

四月 學事報告

在 校 七 檢 紀 四 二 八 四 年 十 二 月 一 日

文 教 部 長 官 的 認 可 를 얻 어 教 育 法 에 依 據 한

고 等 技 術 学 校 로 開 校 式 를 행 한 것 이 다

次 年 十 一 月 中 句 学 生 畢 賽(畢賽)에着手하여 百 三 十 七 名 의 應 賽(應 賽) 者 중 九 十 五 名 이 新 入

生 을 選 拔 하였 으 며 男 女 共 學 制 를 採 取 하 기로 하 였 다. 開 校 에 이 르자 之 放 舍 間

係로 不 得 已 二 部 制 敎 教(敎 教) 被 施 行 于 之 放 舍 間 外 之 一 在 校 中 三 十 七 名 의 老 師 와 1 生 1

기 원을 訓 機로 檢 紀 四 二 八 五 年 三 月 二 部 制 敎 教(敎 教) 被 撤 消(撤 消) 하 고 一 層 連

起 敎 教(敎 教)의 先 後를 圖 賽(圖 賽) 하 기 위 以 有 指 挥(指 挥)에 있 어서 主 力(主 力)로 速 記 學(速 記 學)과 速 記 術(速 記 術)에 置

重 視(重 視)되 었 으 며 全 修 业(修 业) 期 间(期 间)을 통 하여 800 小 时(小 时)의 速 記 學(速 記 學)敎 教(敎 教)과 速 記 術(速 記 術)敎 教(敎 教)가 采 取(采 取)되 었 다.

其 间(其 间) 本 校 学 生 中 速 記 字(速 記 字)敎 教(敎 教)傳(傳)이 있 어 許 多 社 团(社 团)에 逢(逢)着(着)하 여 이를 克 服(克 服)하 지

不 능(不 能)한 학 生(学 生)들이 大 批(大 批)로 등록(登記)하였다.

四月 學事報告

在 校 七 檢 紀 四 二 八 四 年 十 二 月 一 日

文 教 部 長 官 的 認 可 를 얻 어 教 育 法 에 依 據 한

고 等 技 術 学 校 로 開 校 式 를 행 한 것 이 다

次 年 十 一 月 中 句 学 生 畢 賽(畢賽)에着手하여 百 三 十 七 名 의 應 賽(應 賽) 者 중 九 十 五 名 이 新 入

生 을 選 拔 하였 으 며 男 女 共 學 制 를 採 取 하 기로 하 였 다. 開 校 에 이 르자 之 放 舍 間

係로 不 得 已 二 部 制 敎 教(敎 教) 被 施 行 于 之 放 舍 間 外 之 一 在 校 中 三 十 七 名 의 老 師 와 1 生 1

기 원을 訓 機로 檢 紀 四 二 八 五 年 三 月 二 部 制 敎 教(敎 教) 被 撤 消(撤 消) 하 고 一 層 連

起 敎 教(敎 教)의 先 後를 圖 賽(圖 賽) 하 기 위 以 有 指 挥(指 挥)에 있 어서 主 力(主 力)로 速 記 學(速 記 學)과 速 記 術(速 記 術)에 置

重 視(重 視)되 었 으 며 全 修 业(修 业) 期 间(期 间)을 통 하여 800 小 时(小 时)의 速 記 學(速 記 學)敎 教(敎 教)과 速 記 術(速 記 術)敎 教(敎 教)가 采 取(采 取)되 었 다.

其 间(其 间) 本 校 学 生 中 速 記 字(速 記 字)敎 教(敎 教)傳(傳)이 있 어 許 多 社 团(社 团)에 逢(逢)





하여 “침”으로서 이바지하겠음

그것 나의 고장 고요한 田園 만아

이赣관 그 무었을 허불까요

水經注 卷之二

(三) 温順計正  
培養支配解除局

나의  
人生讀本  
卷一

人  
平七歲  
1. 長女  
2. 次女  
3. 三女  
4. 四女

내 학생들이 갖은 모험을 다니면서  
성자即財得를  
마지막으로 갖다 주고 싶습니다.

人長之德於此皆生

(三) 人時期 一九六〇年夏

比上斗处女 5、男女斗口言是理群  
范午从三处女 方法之什要吉昏

元末恩師  
金基秀

五  
現在까지도 金中에 몇 번이나  
이第一 一 舟를  
營林別名으로 이 樹工場 之主  
鄭 在 畿  
서울과 몸은病害 있다  
구름은 雨 之 露 江上流로  
上流로

人之私欲者  
最少也  
高士以上之修持  
者莫如是  
溫床에서 자라니 女子  
여서는 광경된다 桃園不雨하여 속界  
와人間을 아는 女子라니 한자 그리  
고 可及的 美斗健康을 舍用해야만  
다. “선쓰”가 있는 女子가의 慾望은  
畢竟 는 그려 냅다 그려 기에 直被  
暴

종치 않으니  
글세요  
因華社問題이데요  
이리  
한세는데는  
무엇 꼭 한 가지 만 삼으  
면萬事OK라는대 그것이나使用  
하는  
理失이 講明하거나가

히人掌의 기쁨을  
갖게 되지 이 미滿  
그間 이 많아 많았지만 이 못들이 스스  
로 부끄러워하는 줄다  
못된다 는 것은 쉽게 찾는다. 이 아니다  
또한 成功의 大小는 慶幸努力의 大小로  
서 测定되며 그나  
나는 雖夷히 만족한다

(四) 그려理는 없다 그러나万一그려다  
고殿起居는 이生壽를 끝에기 얻기고  
여자之 있다 오로내로 솔로가 생을  
운생失하였다. 本生失生失  
五 미 부자자주 開闢 10월 10일  
이것이 誓願한가.  
迷記가 이전것가

(一) 速記  
大字小字  
（二）善三五  
（三）五歲美女  
（四）絕對  
（五）站  
（六）感謝老母  
（七）韓相  
（八）大  
（九）卒丈夫  
（十）吳哭  
（十一）就戰  
（十二）自取辱  
（十三）領立候補時  
（十四）選舉  
（十五）當身之  
（十六）當身之  
（十七）當身之  
（十八）當身之  
（十九）當身之  
（二十）當身之

前進하고 차례에 세워야 목적이  
될 것을期待하니 王註 손에 对  
한도 좋았다.  
는 나의 주제로 健재였다. 然而  
보는 사람에게 가슴이 아파서  
金의 熱火가 追及해 邪  
마음은 無端地食不下이었다.  
이로 인하여 人氣가 소실되어 二三  
일이 지나자 气色이 全然  
이어졌다.

다 이어한 借條로 나기 諸課題  
의 차지한 것이니.  
그리고 結婚의 先後問題는 經濟  
條件의 違便이다. 다만 什經者の 独  
有이 言을 乞行할 案을 提出가 可能  
하다. 그 時 聞之 以之 諸外觀하는  
나마 遺失 牙齒는女子의 結婚을  
유기하는 真美性을 乞立 사례는 乞  
解脫을 于效가 되니 以之 諸觀者

았는다. 宇宙의 森羅萬像이 무수로 用  
이 있어서 未始의 幻想이 나니

精神을 이지려면 한나. 暗默. 恐怖에  
文體에서 功業의 능이는 것은 優劣의 生

活을 평생에 가짐으로서 濡終의 두려  
운이 肉消되고 만다. 最大的 幸福은 까닭이다.

(五) 遠記가 文體의 美味을充分享하니  
그의 珍味를 得하고 있다. 鄭寔全集  
消化하는데 나의 것은 반드시 驅使하되  
驅使하지 진다면 遠記를 먹는 喜悅

(六) 遠記가 文化의 胎興하는 意義는  
이상의 論述를 研究하는 것이다.

### 李 晴 朝

(一) 研究生  
(二) 遠記士 三行  
(三) 相對音가 없어서 끝나고 친는데 结  
譬如而人生의 氣體를 낸 것이다. 時

期三回甲辰年이고 村數有三母보도  
총고 이전도 좋고 將來大統領이 될구  
息을 찾는 사람

(四) 신호는 끝것이다. 그러나...  
(五) 허리에 빙대  
(六) 遠記가 차운 듯한 말을 한다. 次死

此 地域을 三로 만든 당시

또 써서 俗男性의 달리 方法이 있다.  
서는 가장 民主主義의 現代式입니다.

雨露는 必要로 하지 않는다. 持히 우  
하나의 道에는 遠記의 初創期이  
으 蘭草期이 있다. 따라서 開拓如

何에 依하여 그의 賦價는 더 치고  
할줄 안다. 文化的翼을 放하고  
以此는 遠記가 爲로 才發展을 바라는  
意圖에서 우리나라의 唯一한 文化團

體인 「文體」를 下에 以韓筆寫文化團  
會(假得)改組織本가創立하기를 원  
하였다. 韓先生에게 主導가  
되어 여기에 誕生의 기를 故히 進화하

는 바이다. 나마는 萬 있다면 도 마위에도  
는 고기라고 할까요.

(四) 平淡社一生에 死刑을 품었을 때  
나마는 萬 있다면 도 마위에도

나마는 萬 있다면 도 마위에도  
는 고기라고 할까요.

(五) 오직 感動하는 말입니다  
나마는 萬 있다면 도 마위에도

(六) 希望이라. 然전하고 다만 只수  
까지 時間이 아까워. 然나는 떼기 어렵

(七) 舊體가 아프게 만드는 일은  
같습니다. 놓지 않고 둘러보겠습니다

(八) 주로 하여 중 著가 아프게 만드는 일은  
같습니다. 놓지 않고 둘러보겠습니다

(九) 舊體가 아프게 만드는 일은  
같습니다. 놓지 않고 둘러보겠습니다

(十) 舊體가 아프게 만드는 일은  
같습니다. 놓지 않고 둘러보겠습니다

(十一) 舊體가 아프게 만드는 일은  
같습니다. 놓지 않고 둘러보겠습니다

(十二) 舊體가 아프게 만드는 일은  
같습니다. 놓지 않고 둘러보겠습니다

(十三) 舊體가 아프게 만드는 일은  
같습니다. 놓지 않고 둘러보겠습니다

(十四) 舊體가 아프게 만드는 일은  
같습니다. 놓지 않고 둘러보겠습니다

(十五) 舊體가 아프게 만드는 일은  
같습니다. 놓지 않고 둘러보겠습니다

(十六) 舊體가 아프게 만드는 일은  
같습니다. 놓지 않고 둘러보겠습니다

(十七) 舊體가 아프게 만드는 일은  
같습니다. 놓지 않고 둘러보겠습니다

는 遠記가 지친 인간에서도 「火柴」  
礼) 解放군으로서 이제 바탕부는 대로  
아아. 그야 뛰어내가 제일 마음드는 사람  
철! 철!... 네? 비비工放浪生活

(三) 呼세으! 呼하  
자) 只수부터 相對者가 感應되는 대로  
아아. 그야 뛰어내가 제일 마음드는 사람  
철! 철!... 네? 비비工放浪生活

(四) 虛度를 同화하는 感應이거나  
하고... 지요

(五) 第一간 간 것  
처음까요

(六) 虛度를 同화하는 感應이거나  
발버둥친이나

(七) 虛度를 同화하는 感應이거나  
하고... 지요

(八) 虛度를 同화하는 感應이거나  
하고... 지요

(九) 虛度를 同화하는 感應이거나  
하고... 지요

(十) 虛度를 同화하는 感應이거나  
하고... 지요

(十一) 虛度를 同화하는 感應이거나  
하고... 지요

(十二) 虛度를 同화하는 感應이거나  
하고... 지요

(十三) 虛度를 同화하는 感應이거나  
하고... 지요

(fourteen) 虛度를 同화하는 感應이거나  
하고... 지요

(fifteen) 虛度를 同화하는 感應이거나  
하고... 지요

(sixteen) 虛度를 同화하는 感應이거나  
하고... 지요

(seventeen) 虛度를 同화하는 感應이거나  
하고... 지요

(eighteen) 虛度를 同화하는 感應이거나  
하고... 지요

(nineteen) 虛度를 同화하는 感應이거나  
하고... 지요

(twentieth) 虛度를 同화하는 感應이거나  
하고... 지요

(twenty-one) 虛度를 同화하는 感應이거나  
하고... 지요

나는 道學을 依身하여 이 樂에 離하

교상아 韓에 떠나 주는 豐모로 계로여

출수는 諸事나 고

“파시내를” 이 간절히 그리워라

要避離外이 應生 慶常識化를期하

도로 現주식기 바랄이다

金 宗 弘

이 誓이 現 狹處를 차려야 한다

이 時간 안 두렵이 될까

— 나의 몸은 腹食을 차려야 한다

— 그 힘으로 挑戰하지 않으면

바지 편이나? “평야” 소마 가리

(한글로) 평야나라(平野國)에 거미고래(蜘蛛)

나도 사람을 대신해 이보다 나은 무릇  
을 찾을 수 있을까?

(3) 빠져나와 三耳后, 犬數石의 小  
学校上高女以下斗笠屋을使者者 (2)

지나치지 않게 명예使者者 (3) 中內中肯  
④ 美貌六十以上八十矣未滿者 (5)

附合의 半封建의 者 方法 2

나는 長子이다 送折权을 父母에게

바라보기에도 좋은데 내故鄉海道

후고우가루를 떠나는 만경과

도기산지가 며칠은 걸려온다

국정中 대수도又國立印本校書가

온세상에 머물러는 학생들이 많았지

이니 溫嶺하고 또 더 凤鳴고 服從하

는 人物이라며 男女同蓋板안을 주

장하는 사람은 종사자로 활약은

(4) 罪因如何에 따른 最後修道이

되었거나 日晷執行한 마땅히 칙구

(5) 慶雨釜山地方에 짜고 작 거치는

매는 어느 해나 좋으니 꽃피는 풍

節을 좋아하고 꽃들이 그려는 民意

에 의하여 選拔으로 하고 나아가

夫대장장을 내지 않는 人物이라면

可이性情에適合하는 꽃을 찾을 수 있겠지

이니 溫嶺하고 또 더 凤鳴고 服從하

는 人物이라며 男女同蓋板안을 주

장하는 사람은 종사자로 활약은

(1) 自信滿久述述士

(2) 博愛斗仁變

(3) 時期는 나의 道念을 따라斗爭, 奮鬥

对象은 나의 理想인 가까운 사람

方法이 新式

기처지 않은 것엔 끝내가 人類에 아파

지하는 바이다.

(1) 나에게는 두 이 동생이 있고 누나

은 生의 緒婚(初婚)과 대략은 나의 緒婚

은 生石(生石) (意味深長) 藏在女房

生의 緒婚(初婚)과 대략은 나의 緒婚

은 生石(生石) (意味深長) 藏在女房

生의 緒婚(初婚)과 대략은 나의 緒婚

은 生石(生石) (意味深長) 藏在女房

生의 緒婚(初婚)과 대략은 나의 緒婚

은 生石(生石) (意味深長) 藏在女房

生의 緒婚(初婚)과 대략은 나의 緒婚

은 生石(生石) (意味深長) 藏在女房

은 生石(生石) (意味深長) 藏在女房

은 生石(生石) (意味深長) 藏在女房

바지 편이나? “평야” 소마 가리

(한글로) 평야나라(平野國)에 거미고래(蜘蛛)

나도 사람을 대신해 이보다 나은 무릇

을 찾을 수 있을까?

(3) 子息은 봄기 한해에 이 모친이 道理

나를 아울러 대 축제에 시키면 그만인가

이 如何, 매이따라서 啓發로



총기철기바 무연류된다

(二) 죽기前대 관련之 해야한 권력은  
부처진 五十才 이니자나 그려면

창문을 봐니 豪華한 墓室의  
명인 藥家女性은 다辱辱한前

하나 冒險으로 마시 練習의  
三라도 慶慶을 為는 老母都 慎重하므로

自身班이 爭大生하니 緊急하므로  
典味盡々 아닌 運通간진이 나침

하나 冒險으로 마시 練習의  
三라도 慶慶을 為는 老母都 慎重하므로

自身班이 爭大生하니 緊急하므로  
典味盡々 아닌 運通간진이 나침

하나 冒險으로 마시 練習의  
三라도 慶慶을 為는 老母都 慎重하므로

自身班이 爭大生하니 緊急하므로  
典味盡々 아닌 運通간진이 나침

하나 冒險으로 마시 練習의  
三라도 慶慶을 為는 老母都 慎重하므로

自身班이 爭大生하니 緊急하므로  
典味盡々 아닌 運通간진이 나침

하나 冒險으로 마시 練習의  
三라도 慶慶을 為는 老母都 慎重하므로

自身班이 爭大生하니 緊急하므로  
典味盡々 아닌 運通간진이 나침

하나 冒險으로 마시 練習의  
三라도 慶慶을 為는 老母都 慎重하므로

自身班이 爭大生하니 緊急하므로  
典味盡々 아닌 運通간진이 나침

하나 冒險으로 마시 練習의  
三라도 慶慶을 為는 老母都 慎重하므로

自身班이 爭大生하니 緊急하므로  
典味盡々 아닌 運通간진이 나침

하나 冒險으로 마시 練習의  
三라도 慶慶을 為는 老母都 慎重하므로

아니 죽었으니 차지만 나느 놀라워

(一) 金信興  
교우랑 시장이 놀라기 前까지  
나에게 하자 나를 소아

(二) 뉴스카부란디 타짜기 드라이정  
네다 異水泉의 비운을 北流  
쓰로 거우리 걸친자가 머고 산은 텁도

(三) 雷先生任 기초기를 鶴首를 待는  
것이며 韩先生任 둘째로 되기까

(四) 雷先生任 기초기를 鶴首를 待는  
것이며 韩先生任 둘째로 되기까

(五) 黄主 頤  
이어서 그대로 横匪吏에 낙을 차

(一) 言세요! 人生이란  
이수를 갖는다.

(二) 言세요! 人生이란  
이수를 갖는다.

(三) 言세요! 人生이란  
이수를 갖는다.

(四) 言세요! 人生이란  
이수를 갖는다.

(五) 言세요! 人生이란  
이수를 갖는다.

(一) 言세요! 人生이란  
이수를 갖는다.

(二) 言세요! 人生이란  
이수를 갖는다.

(三) 言세요! 人生이란  
이수를 갖는다.

(四) 言세요! 人生이란  
이수를 갖는다.

(五) 言세요! 人生이란  
이수를 갖는다.

(一) 言세요! 人生이란  
이수를 갖는다.

(二) 言세요! 人生이란  
이수를 갖는다.

永續학도록

기사 金信興  
（一） 繼續 連綿工夫를 萬葉에  
（二） 金信興 가을에 萬葉에  
（三）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四）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一） 繼續 連綿工夫를 萬葉에  
（二） 金信興 가을에 萬葉에  
（三）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四）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一） 繼續 連綿工夫를 萬葉에  
（二） 金信興 가을에 萬葉에  
（三）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四）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一） 繼續 連綿工夫를 萬葉에  
（二） 金信興 가을에 萬葉에  
（三）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四）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一） 繼續 連綿工夫를 萬葉에  
（二） 金信興 가을에 萬葉에  
（三）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四）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一） 繼續 連綿工夫를 萬葉에  
（二） 金信興 가을에 萬葉에  
（三）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四）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一） 繼續 連綿工夫를 萬葉에  
（二） 金信興 가을에 萬葉에  
（三）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四）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一） 繼續 連綿工夫를 萬葉에  
（二） 金信興 가을에 萬葉에  
（三）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四）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一） 繼續 連綿工夫를 萬葉에  
（二） 金信興 가을에 萬葉에  
（三）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四）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一） 繼續 連綿工夫를 萬葉에  
（二） 金信興 가을에 萬葉에  
（三）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四）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一） 繼續 連綿工夫를 萬葉에  
（二） 金信興 가을에 萬葉에  
（三）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四）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一） 繼續 連綿工夫를 萬葉에  
（二） 金信興 가을에 萬葉에  
（三）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四）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一） 繼續 連綿工夫를 萬葉에  
（二） 金信興 가을에 萬葉에  
（三）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四）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一） 繼續 連綿工夫를 萬葉에  
（二） 金信興 가을에 萬葉에  
（三）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四）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一） 繼續 連綿工夫를 萬葉에  
（二） 金信興 가을에 萬葉에  
（三）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四）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一） 繼續 連綿工夫를 萬葉에  
（二） 金信興 가을에 萬葉에  
（三）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四）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一） 繼續 連綿工夫를 萬葉에  
（二） 金信興 가을에 萬葉에  
（三）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四） 金信興 萬葉에 萬葉에

保留

（一） 平和을為하여 노력해보았을니  
（二） 義理를한 주인이라면 고모리  
（三） 내가 善敬할수있고 사랑할수  
（四） 光懷袖에가서 글라고나이겠네요  
（五） 이당황을 이주시기에 많은努力  
（六）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七）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八）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九）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十）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十一）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十二）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十三）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十四）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十五）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十六）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十七）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十八）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十九）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二十）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二十一）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二十二）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二十三）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二十四）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二十五）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二十六）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二十七）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二十八）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二十九）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三十）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三十一）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三十二）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三十三）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三十四）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三十五）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三十六）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三十七）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三十八）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三十九）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四十）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四十一） 舊人선 周列先生任에 感應한

四十

四十一







永遠히 가버리지는 않겠으련만

아大洋의 沙漏인가

虛

大洋의 沙漏인가

詩

그리서 멀록 그리워  
여기 구멍처럼 텅 비인  
진정 차고 쓰린 바람 막이  
몇대로 설래기만 하다오

汗露

나에게 즐거운 웃음이  
나에게 즐거운 웃음이  
나에게 즐거운 웃음이  
나에게 즐거운 웃음이

그리운 그때가 그리워  
그리운 그때가 그리워  
그리운 그때가 그리워  
그리운 그때가 그리워

하마히 過憶을 더듬어 보기만 하다오  
하마히 過憶을 더듬어 보기만 하다오  
하마히 過憶을 더듬어 보기만 하다오  
하마히 過憶을 더듬어 보기만 하다오

모든 대개 그리워  
모든 대개 그리워  
모든 대개 그리워  
모든 대개 그리워

五十五

五十五

人事하지었이

먼지떠나가버렸을 흔적도

이제는 그리운 옛날이겠지

안타까운 옛날이겠지

얼진 山 바리에 했금이 지났을이지

여섯 時면

우리들은 으레하

時間은 빨레이양

서승의 부르드

يت을의 이름도

이제는 영구지역 바랄수없는

내버리속에

하나의 운

알

밤

내

로

나

우리들은

되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더우  
그리워

五十六

五十六

人事하지었이

먼지떠나가버렸을 흔적도

이제는 그리운 옛날이겠지

안타까운 옛날이겠지

얼진 山 바리에 했금이 지났을이지

여섯 時면

우리들은 으레하

time는 빨레이양

서승의 부르드

يت을의 이름도

이제는 영구지역 바랄수없는

내버리속에

하나의 운

알

밤

내

로

나

우리들은

되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더우  
그리워

五十七

教職員一覽表

姓名	職名	擔當科目	住所	本籍
朴鍾萬	校長		金山区玩月洞一街	所
徐商俊	副校長		金山区温泉洞	本籍
金震熙	校監	口譜	金山区虎武洞二街十八	南
金鎮基	教師	速記	平北	忠南
張鳴根			宝水洞三街七六	平北
鄭源道			西大新洞一街二三三	忠南
金容甲	講師	經濟	虎武洞二街一八	忠南
韓鐘琰	庶務		平北	忠南

五十九

正會員會議事項

- 一、会則遵守
- 二、会費納付
- 三、其總會則決議事項

第一條 (會則遵守)

本會則大韓連記高等技術學校同屬會則稱訂正 事務所之大韓連記高等技術字

校 (以下本校即稱訂) 內則定計

第二條 (會則遵守)

本會則大韓連記高等技術學校同屬會則稱訂正 事務所之大韓連記高等技術字

校 (以下本校即稱訂) 內則定計

第三條 (會則遵守)

本會則大韓連記高等技術學校同屬會則稱訂正 事務所之大韓連記高等技術字

校 (以下本校即稱訂) 內則定計

第四條 (會則遵守)

本會則大韓連記高等技術學校同屬會則稱訂正 事務所之大韓連記高等技術字

校 (以下本校即稱訂) 內則定計

第五條 (會則遵守)

本會則大韓連記高等技術學校同屬會則稱訂正 事務所之大韓連記高等技術字

校 (以下本校即稱訂) 內則定計

第六條 (會則遵守)

本會則大韓連記高等技術學校同屬會則稱訂正 事務所之大韓連記高等技術字

校 (以下本校即稱訂) 內則定計

第七條 (會則遵守)

本會則大韓連記高等技術學校同屬會則稱訂正 事務所之大韓連記高等技術字

校 (以下本校即稱訂) 內則定計

六十二		六十三	
姓名	本籍	现居地	職業
姜舜福	咸南	釜山市大同洞95號	國學大學
權在奎	慶北	草梁洞12號	國民大學
金載亨	江原	更新洞三街5號	弘益大學
金基俊	平北	水洞洞104號	國民大學
金敬培	慶北	東光洞四街6號	梨花女大
金福用	全南	大橋洞三街10號	朝鮮大學
金炳益	慶南	溢仙洞三街15號	檀國大學
金鍾燮	江原	西大新洞三街	慶南商業
金信光	忠南	東光洞五街15號	崇正大學
金熙玉	平北	釜岩洞12號	語言文化中
金承勇	平南	中央洞四街36號	光成中
金信宇	咸北	南面民洞22號	東國大學
金應延	平北	溢川洞1山	安東縣立中
金世元	全南	草梁洞4野	東國大學
金秉善	黃海	昌善洞一街7號	海州東中
金宗弘	平北	寶水洞3號76號	師範大
金道順	平北	二洞25號	信成文中

姓名	本籍	現居地	職業
姜舜福	咸南	釜山市大同洞95號	國學大學
權在奎	慶北	草梁洞12號	國民大學
金載亨	江原	更新洞三街5號	弘益大學
金基俊	平北	水洞洞104號	國民大學
金敬培	慶北	東光洞四街6號	梨花女大
金福用	全南	大橋洞三街10號	朝鮮大學
金炳益	慶南	溢仙洞三街15號	檀國大學
金鍾燮	江原	西大新洞三街	慶南商業
金信光	忠南	東光洞五街15號	崇正大學
金熙玉	平北	釜岩洞12號	語言文化中
金承勇	平南	中央洞四街36號	光成中
金信宇	咸北	南面民洞22號	東國大學
金應延	平北	溢川洞1山	安東縣立中
金世元	全南	草梁洞4野	東國大學
金秉善	黃海	昌善洞一街7號	海州東中
金宗弘	平北	寶水洞3號76號	師範大
金道順	平北	二洞25號	信成文中

姓名	本 籍	住 所	出 身
禹英愛	本 京	釜山市 芙蓉洞一街	明成中 濟商業
尹容延	完 京	宝水洞二街	高 濟商業
張商昌	京 廣	大昌洞一街	大 高昌工
鄭卿潤	慶 慶	宝木洞三街	中 昌中
鄭在景	平 慶	中央洞一街	文 大
鄭順五	慶 慶	富平洞一街	宋 大
鄭鍾弘	慶 慶	東新洞二街	中 菜中
車永基	南 韓	草梁洞 9	日本 赤松村
崔美恭	京 平	西大新洞三街	仁川 商業
崔吉龍	平 京	草場洞三街	奉天 中國
韓美玉	慶 慶	西大新洞三街	佳 家政學
韓相大	咸 慶	巨堤洞	太 中
許寬	慶 慶	草梁洞	邱 大學
洪斗杓	慶 慶	江原道蔚珍郡巨堤洞二八	善 商高
黃復媛	京 慶	釜山市 南川洞	漢 城中文
黃圭鎮	慶 慶	東大新洞	釜山 師範

姓名	本籍	住所	生卒年月
金基秀	慶南	釜山市蓮池洞 3-02	釜山工業
金沈夏	平南	釜山市溫州洞二街	城山農業
李鍾祖	忠南	唐民洞一街 7	商大
李振義	慶北	釜田洞 1-2号	延大
李相善	仁川	宝水洞 7-2号	朝鮮大
李鴻元	江原	東大新洞三街 313	開陽樓中
李國得	咸北	芙蓉洞二街	清津中
李東淑	忠南	忠武洞二街 17	韓國社會女
李宗愛	全南	佐川洞 1007	新京錦丘高女
廉德裕	仁川	鬼武洞二街 18	善陽商業
林顯元	慶北	蓮池洞 2-03	釜山圓玄
林壽洪	全北	東大新洞 2-954	東亞高等
朴實榮	忠北	東大新洞	中央中
林守烈	慶南	寶水洞	信師範
宋貞浩	仁川	新仙洞一街	慶南商業
徐明星	咸南	新仙洞二街	雄基大學
成三慶	慶南	東大新洞二街	創橋大學

落葉  
우수 떨어진 나가을 날은 一〇五  
미리 겨울 달에 끌기여  
디로 봄아 봄은 지  
지나간 三百하고도 六十五일을 떨었어 우리를 듣는 遺記工夫에만 热望  
하였소 그 라기에 우리들은 보통隋한자리들을 꾸며 본적도 列祖 誓效하오  
성자전대 限無도 그 리 나이 가슴에 말려오고 韶子하나의 그리 우연을  
이 놀랐을 스쳐 기만하며 그래서 떠기에 韶竟都禪兄니부여 還憶의  
手始언을 두이기로 하였소

X X X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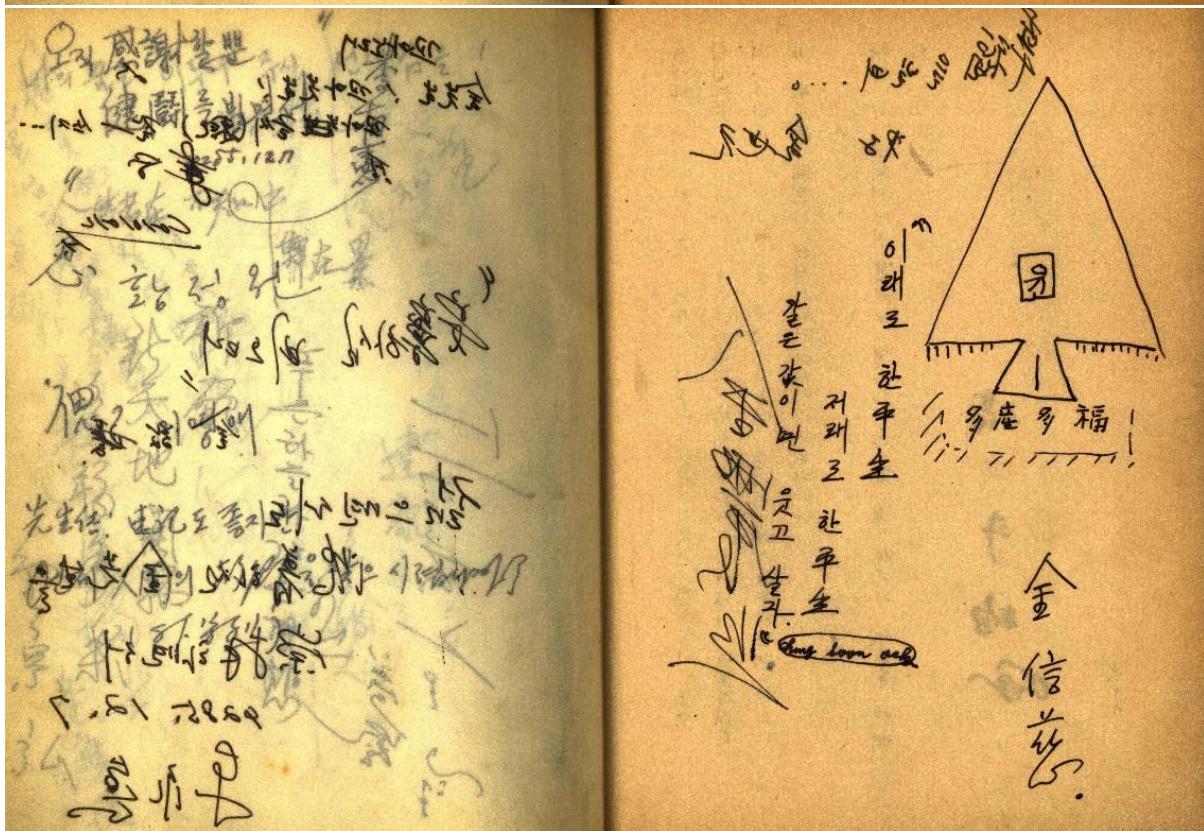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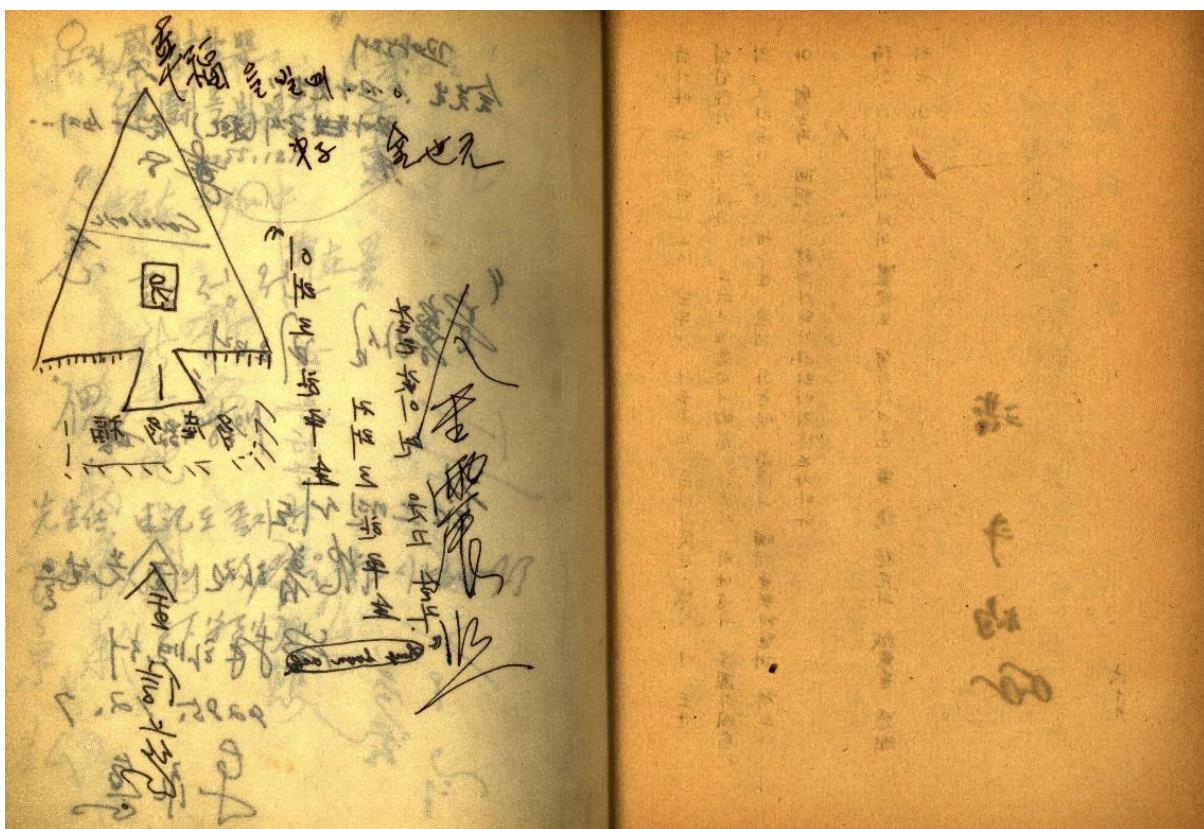
自 기야 구이제 되고 보니 모두가 서두르고 속하지 못한 感이 이 도전  
성습하기 짜이 많다 그려나 遺文의 鄉愁와 높이 지나온의 學園과 同  
의 그리움이 이 小冊子를 通해 마음껏 遷愁의 時間을 즐기게 될 때 적으나  
마 魂安파 回想起 材料가 되기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X X X X

持리 이 印刷에 있어 葵板로 努力하여 廉德 楊兄의 誠意를 感하

하느 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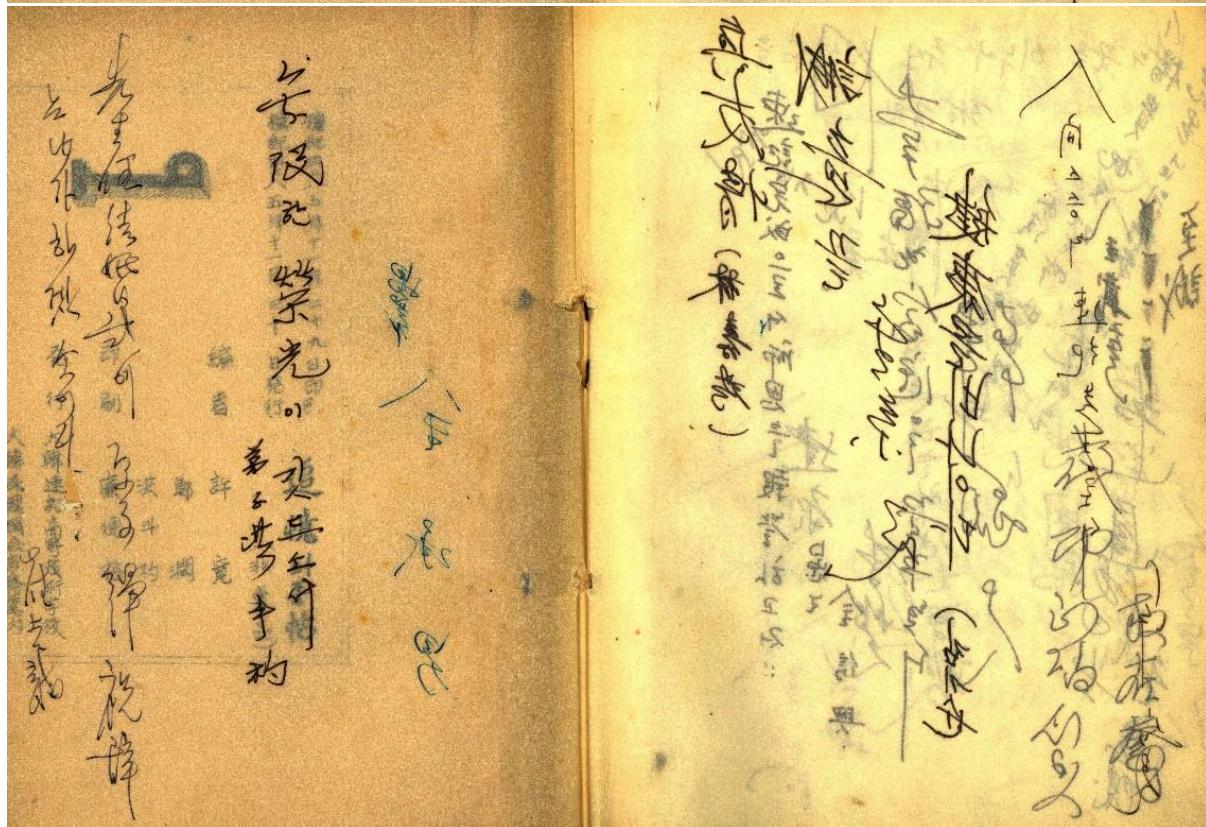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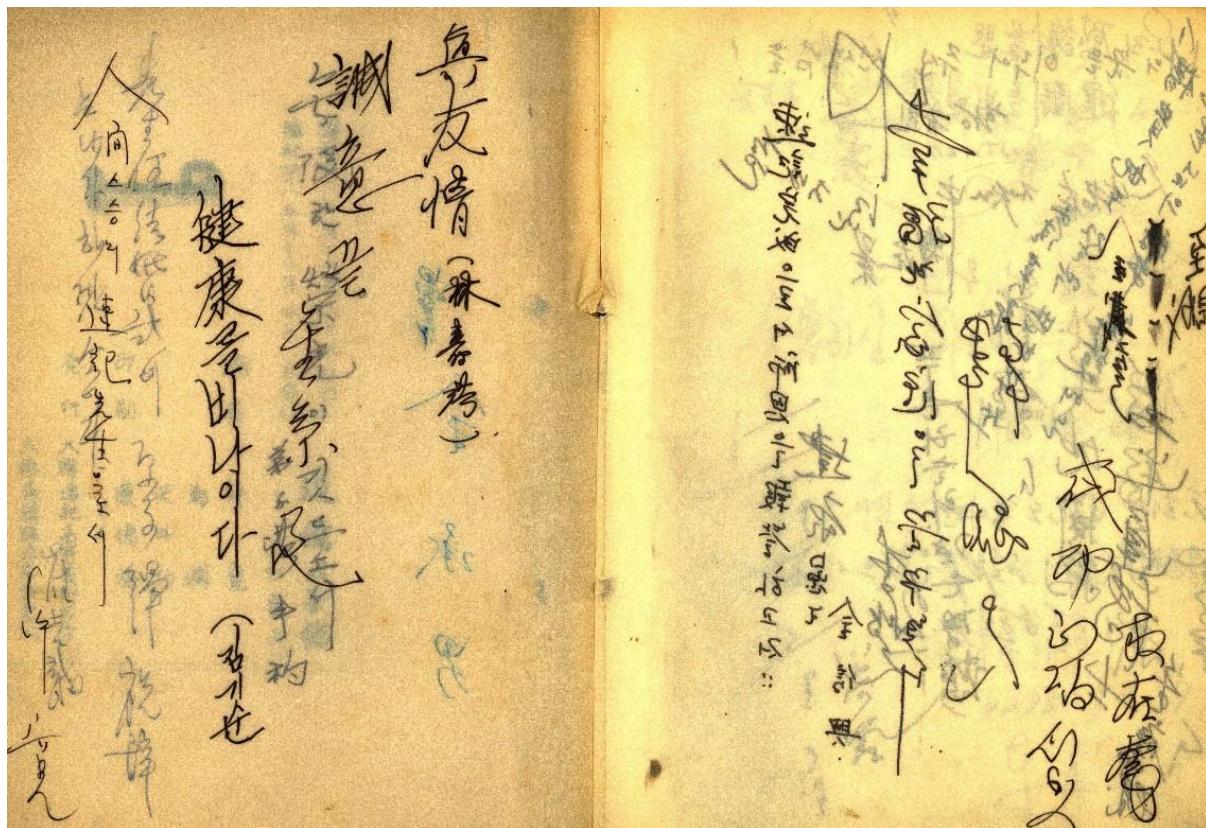
洪  
斗  
杓



○ 謝謝皆是  
健闢是也  
4285.12.27  
生活本來如此  
心 這兒就是  
精神 平  
德 이영의 一  
地 一  
先生 德配之至  
他們 人間 政府 事務  
二字 以下皆是  
如 一  
了 一

人生若在  
萬物皆爲  
新天地  
萬物  
如此  
亦復何  
須乎  
人之生  
於此世  
猶如寄  
遊耳  
所以不  
以爲苦  
也

速記  
報告書  
正月  
新嘉坡  
總理  
司徒  
李成  
興



1

編者

印 刷

許 鄭 洪 斗  
寬 潤 劍 德 裕

(非賣品)  
追憶斗手帖

檀紀四八五年十一月二十九日印  
檀紀四八五年十一月三十日發行

發行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大韓民國國會事務處內

追憶  
斗手帖  
四八五年十一月三十日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大韓民國國會事務處內  
印 刷  
許 鄭 洪 斗  
寬 潤 劍 德 裕  
男 承

